

제 7강 문화유물론의 철학적 쟁점

(1교시)

■ 문화의 주체와 노동에 관한 쟁점들

※ 학습목표

문화를 이끄는 주체와 노동과 문화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알아본다.

▲ 문화의 주체에 대한 쟁점

- ① 문화의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관점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한다.
- ② 관념론적 접근
 -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문화의 주체라고 보았다.
 - 문화는 인간 정신의 뛰어난 활동이며 높은 정신의 산물이라고 보았다.
 - 높은 수준의 활동물을 낳기 위해서는 물질적 노동에서 해방되어야 하고 높은 정신 수준도 가져야 한다는 충분조건이 있었다.
 - 따라서 재능 있고 훈련된 소수의 엘리트만이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았다.
- ③ 유물론적 접근
 - 노동하는 대중이 문화의 주체라고 보았다.
 - 인간의 정신활동도 자연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이기에 특정한 방식과 노동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보았다.
 - 문화는 인간 정신의 활동이지만 그 활동을 사회적, 물질적 조건과의 연관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다. (역사 유물론의 관점을 문화에 적용)

▲ 주체에 대한 관점과 관련한 쟁점들

- ① 고급문화와 대중문화
 - 수준/질의 문제로 보는 것: 고급문화의 반대가 대중이 되려면 대중이 질이 낮아야 한다는 대립 지점을 논의할 수 있어야한다.
- ② 이성적 판단 능력
 - 미학의 관점: 미를 느끼고 알아보는 능력이 특별한 감성인지 일반적인 감성인지가 쟁점이 된다.
 - 이성적 판단 능력: 전통사회에서는 이성적인 능력이 귀족에게만 부여되어 있다고 보았다.
- ③ 남성과 여성의 문제
 - 남성이 여성의 우위에 서서 바라보는 관점이 논쟁이 된다.

▲ 문화와 노동에 관계에서의 쟁점

- ① 관념론적인 접근
 - 문화와 노동은 모순관계에 놓여있다고 보았다.

- 19세기의 유럽 관념론은 문화인격체를 인간다움의 표상이자 진보의 목표로 삼았다.
-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절대적 영역으로 문화영역에 대한 설정을 하였다.
- 불완전한 존재들을 정신적, 도덕적, 미적, 예술적으로 교육시켜 문화 수준을 올리고 문화 인격체에 가까이 가는 것이 목표였다.
- 부정적 노동관을 제시한다. (노동은 정신활동과 모순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여가가 자유와 행복을 준다고 보았다.)
- 문화에서도 부르주아가 주체가 되어 그들의 입장은 정당화되고 그것으로 인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.

② 유물론적인 접근

- 현실적 역사적 노동(노예 노동, 농노 노동, 임노동)은 강제이며 소외된 노동이라는 것으로 보았다.
- 노동이 소외, 강제에서 벗어나 자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마르크스는 그런 흐름에 대한 저항으로 사회주의를 이야기 하였다.
- 노동은 인간의 삶과 문화의 기본 조건이며 노동을 통해 자연 변화, 자신의 잠재적 재능의 계발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.

▲ 문화와 노동의 관계 쟁점의 주요 사항

- ① 관념론: 문화를 개인의 차원, 정신적 차원에서 접근하였다.
- ② 유물론: 문화가 생겨나고 발전하는 실제적 토대를 중요시 하였고 그 토대를 사회적이고 물질적인 노동에서 찾았다. (노동과 생산력이 문화를 만들고 발전시키는 핵심 동력이라고 보았다.)

▲ 노동과 마르크스의 사회주의

① 자본주의 비판

- 노동착취를 없애고 그것을 자기실현으로 바꾸려면, 노동의 상품화와 계급을 없애고 사적 소유를 없애야 한다고 보았다. (궁극적 목표 - 노동 회복)
- 사회주의, 공산주의가 되면 그것이 가능해진다고 보았다.
- 자본주의에서 노동비는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용이라고 보았다.
- 제도적으로 일한 결과는 자본가가 갖는 게 자본주의이며 임노동의 본질은 노동착취라고 보았다.

제 7강 문화유물론의 철학적 쟁점

(2교시)

■ 문화유물론의 두 측면과 마르크스가 본 문화의 지위

※ 학습목표

문화유물론의 두 측면과 마르크스가 본 문화의 지위에 대해서 알아본다.

▲ 문화 유물론의 두 가지 측면

- ① 문화는 물질적 토대의 산물으로써 토대를 반영한다. (마빈 해리스의 인류학)
 - 문화 현상을 과학적, 물질적으로 설명하려 하였다.
 - 종교적인 신념이나 가치관으로 문화를 정신화 하는 관념론적 접근을 비판하였다.
- ② 문화는 단순한 토대의 반영이 아니라 그 자체가 토대로써 물질적인 성격을 갖는다. (윌리엄스의 문화론)
 - 문화의 역할을 부각하고 강조하였다.
 - 문화의 실천적인 차원을 이야기하였으며 문화의 독립성, 자율적 힘을 강조했다.

▲ 마르크스의 역사유물론과 문화의 지위 - 「독일 이데올로기」

- ① “의식은 의식된 존재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아니다.”
 - 여기에서 의식과 존재를 물질/존재/자연과 의식/사유/정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.
- ② 유물론적 역사관은 직접적인 생활의 물질적 생산에서 출발하여 현실적인 생산 과정을 전개하고, 이러한 생산 양식과 관련되면서 그로부터 산출된 교류 형태, 즉 각기 다른 단계에 있는 시민 사회를 전체 역사의 기초로 파악하는 데 기인한 것이다.
 - 여기에서 시민은 ‘자본가의 시민’을 나타낸다.
 - 교류형태는 국가에서 포함하는 시장의 개념이다.
- ③ “이 역사관은 시민 사회의 행위를 국가로서 서술하며, 아울러 의식, 종교, 철학, 도덕 등의 모든 이론적 산물과 형태들이 어떻게 시민 사회로부터 생겨났는가를 설명하고, 그것들이 그 기초로부터 형성된 과정을 추적한다.”
 - 의식, 종교, 철학, 도덕은 문화를 가리킨다.
- ④ “이리하여 도덕, 종교, 형이상학, 그리고 그 밖의 이데올로기 및 그에 상응하는 의식 형태들은 더 이상 자립성의 가상(Schein)을 지니지 않는다. 그것들은 아무런 역사도 갖지 않고, 아무런 발전도 갖지 않으며, 오히려 자기의 물질적 생산과 물질적 교류를 발전시키는 인간이, 자기의 현실과 함께 자기의 사고와 그 사고의 산물을 변화시킨다. 의식이 삶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의식을 규정한다.”

▲ 마르크스의 역사유물론과 문화의 지위 - 「정치경제학 비판 서문」

- ① 물질적 생산력의 일정한 발전 단계에 대응하는 생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.

② 생산 관계들의 총체가 사회의 경제적 구조를 형성하며, 이를 실질적 토대로 하여 법적, 정치적 상부 구조와 일정한 사회적 의식 형태가 대응하는 것으로 보았다.

③ 물질적 생활의 생산방식은 사회적, 정치적 그리고 정신적 생활과정의 일반을 제약하며, 인간의 의식이 그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그 의식을 규정한다고 보았다.

▲ ‘사회적 존재’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

① 해석의 문제와 변화된 현실에 기반을 두어 이론을 발전시키는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.

② 사회적 존재는 인간의 현실적 생활과정 전체를 가리키고 모든 실천적 활동을 나타낸다.

③ 문화는 단순히 상부구조의 형태가 아니라 우리를 규정하는 사회적 존재의 일부로서 물질성을 갖는 것이다.